

2012. 5. 21 제287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동향

2012. 5. 21 제287호

산업·경제

1. 제조업 집적 강화 지원사업 추진 (도쿄都)

건강·복지

2. '장애인 자립과 참여를 위한 기본계획' 추진 (파리市)
3.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가장 적은 도시로 선정 (베를린市)

도시환경

4. 도심에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활용법 '트라이제너레이션' 도입 (호주 시드니市)
5. 재활용쓰레기를 로컬푸드와 물물교환하는 프로그램 시행 (멕시코시티)
(토막기사) 새로운 친환경 도시 만들기 20년 계획안 발표 (워싱턴 D.C.)
(토막기사) 부동산시장에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저탄소 건물 보급 확대 추진 (도쿄都)

도시계획·주택

(토막기사) 'PlaNYC'를 업데이트하고 2014년까지의 부문별 단기전략 발표
(뉴욕市)

(토막기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주택 자가건설 지원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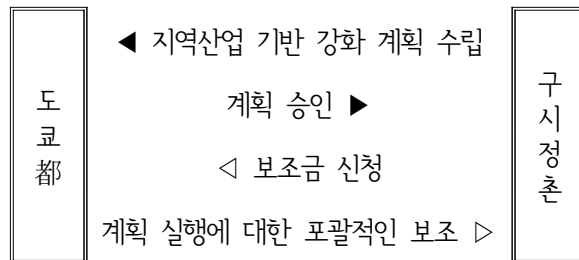
산업 · 경제

1. 제조업 집적 강화 지원사업 추진 (도쿄都)

○ 도쿄都 산업노동국은 장기화되고 있는 엔고 현상과 전력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산업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집적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12년부터 ‘제조업 집적 강화 지원사업’을 시작함.

- 이 지원사업은 주요 제조업의 집적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구시정촌은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지역 산업 기반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都는 각 구시정촌이 ‘지역산업 기반 강화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억 엔(약 14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율은 사업비의 1/2임.



【‘제조업 집적 강화 지원사업’의 개념】

· 2012년 5월 10일 이 사업의 제1호로 승인된 오타(太田) ‘지역산업 기반 강화 계획(2012~2016)’에서는 입지 지원 확대, 입지환경 정비, 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환경·의료·건강·정

보·가전·항공기·로봇 관련 산업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구조로 전환할 예정임.

【오타(太田) '지역산업 기반 강화 계획(2012~2016)'의 주요 내용】

핵심 목표	사업내용	기대효과
입지 지원 확대	제조공장 입지 지원 확대 및 투자 지원 신설	기업 입지 및 이전 공장 신·증설 등을 촉진함과 동시에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 등을 대상으로 투자 촉진
입지환경 정비	히가시코지야(東糀谷) 6정목 아파트형 공장 설치 및 운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체를 위한 조업환경 정비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매칭 사업 확충	연구개발형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기업 연구부문의 교류 확대 지원



【히가시코지야(東糀谷) 6정목 아파트형 공장】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20m5a7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5/20m5a701.htm)

건 강 · 복 지

2. '장애인 자립과 참여를 위한 기본계획' 추진 (파리市)

○ 파리市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육아, 입학, 구직, 주거, 공공공간, 스포츠, 문화 및 여가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문화 및 여가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의 바탕이 되는 '장애인 자립과 참여를 위한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市 장애인정책의 지침 역할을 함. 2012년 장애인정책에 지원되는 市 예산은 2011년에 비해 3% 증가함. 장애인을 위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市는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파리 장애인 상황 관측소'를 설립해 운영함.
 - 市 사회활동·아동·건강국, 파리 도시계획 아틀리에 등이 건립을 추진한 이 관측소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사회 서비스, 직업훈련과 일자리, 교육, 이동, 접근성, 주거, 문화 및 여가 분야의 지표를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市는 관련 기관 및 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음.
 -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회 활동을 도와주고 있음. 매년 13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검토하며 주로 문화, 취학, 관광, 사회진입, 이동, 스포츠 등의 분야에 지원하고 있음.

- 市는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
 - ‘접근성 개선을 위한 꼬뮌 위원회’는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인 주택 제공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함. 위원회는 의원, 장애인협회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市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함.
 - 市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도, 광장, 공원, 정원 등을 정비하고 새로운 가로시설물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음. 2003년부터 모든 공공공간 정비사업은 2002년 통과된 접근성 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함. 접근성 기본계획의 후속 지침서인 접근성 확보계획은 도로와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과 정비기간을 정하고 있음. 市는 이 계획에 의거해 공공공간 정비사업의 결산표를 작성함.
 - 버스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市는 버스에 쉽게 탈 수 있도록 인도를 높이고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을 함. 트램의 정비작업 시에도 접근성 기본계획을 반영함. 구청, 협회, 문화시설, 보육원, 학교시설,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파리市 사회활동센터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 ‘파리市 보조금’은 장애인에게 매달 최소한의 재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파리에 3년 이상 살고 있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으며 수입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짐. ‘파리 핸디캡 건강보호 보조금’은 건

강보험기관 가입비를 내는 것을 지원하는 보조금임.

- ‘에메로드(Emeraude) 카드’는 파리의 대중교통 및 지하철과 파리 근교 지하철 중 1존과 2존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3년 이상 파리에 산 장애인에게 발급됨. ‘아메티스트(Amethyst) 카드’는 파리의 대중교통 및 지하철과 파리 근교 지하철 중 1존부터 6존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3년 이상 파리에 산 장애인에게 발급되며 신청자가 요금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함.
 - ‘장애아동 부모 지원 보조금’은 장애아동 부모에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장애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파리 가족 주택 보조금’은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데,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아이가 1명이라도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핸디캡 아동 보조금’은 市 직원 중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주어짐.
 - ‘파리 자택 카드’는 장애인 혹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사는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식사 배달, 이발, 주거 점검 등이 있음.
- 市는 장애아동 보육, 치료, 취학에도 힘을 쏟고 있음.
- 보육원, 아동 정원 등을 운영하는 8개의 단체가 수용인원의 30~40%를 장애아동에게 할애함. 다른 기관들도 장애아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경우 市가 물리치료사 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 사회·의료 조기 활동센터 4개소는 만 0~6세의 장애아동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데, 市는 전체 보조금의 20%를 지원함. 市는 장애아동의 일반 공·사립학교 입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여가센터 등에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함.

- 市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08년 장애인 취업기금과 협약을 맺고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직업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지원함.
- 현재 파리 사회주택의 20%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은 주택임. 市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 임대자에게 주택 개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함. 주거개선 기관은 민간주택 개선 및 개조를 위한 공익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이 살기 편한 주택으로 개조하는 데 재정지원을 함.

(www.paris.fr/politiques/les-politiques-parisiennes/handicap/rub_9706_stand_82984_port_24008)

(www.paris.fr/pratique/Portal.lut?page_id=6687&document_type_id=4&document_id=20046&portlet_id=15402)

3.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가장 적은 도시로 선정 (베를린市)

- 독일연방 노동보호청이 발표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이 독일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가장 적은 도시로 평가받음. 이는 베를린市가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관리와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충실히 시행한 결과임.
- 市 노동·통합·여성국은 2012년 4월 28일 ‘세계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호의 날’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고 베를린 노동보호청의 1년간 추진사업과 성과를 보고함.

- 독일 사고보험공사에 따르면 2011년 베를린市の 근로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3만 3501건으로 2010년보다 2500건 정도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도 8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함. 이러한 통계는 근로자 수 증가, 특히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사망사고의 경우 가장 많은 유형은 건설공사장에서의 추락사고이고, 직업병의 경우 피부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석면 관련 후유증과 디스크인 것으로 나타남.
-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베를린市가 독일에서 가장 근로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적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베를린 노동보호청의 근로자 건강보호와 근로환경 안전관리 때문임.
 - 독일의 노동보호청은 각 州에 있는 지부를 통해 근로자를 직업과 관련된 위험 및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독일에서 노동보호는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에 대한 의료적, 기술적 보호를 넘어 사회적 보호까지를 포괄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노동보호청이 설정한 노동보호의 목표는 안전사고의 빈도와 심각한 사고 줄이기, 근로자의 근골격 부담 및 근골격질환 줄이기, 피부병 줄이기, 심리적 부담 줄이기, 회사 내에서 노동보호에 대한 인식 체계화하기임. 市 노동보호청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함.
 - 이 프로젝트는 ① 시간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 ②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보호, ③ 운송에서의 안전, ④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보호, ⑤ 간호분야에서의 안전과 건강보호, ⑥ 피부 손상 유발 물질 취급 직종에서의 건강보호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됨.

-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프레스 공정이 수반되어 사고발생률이 높은 리사이클링 업체에 안전 분야 전문인력, 구조반, 의사가 배치되었으며 기계 사용 및 고장수리에 대한 설명문 부착, 정기적인 기능 점검, 안전 경보장치 장착, 기계 및 차량 이동로에서의 안전 강화 조치 등이 의무화됨.
 - 이 밖에도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상가나 영업소에서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됨.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신 가능성, 수유 및 육아를 고려해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임신부 및 어머니에게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함.
- 市 노동·통합·여성국은 이날 보고서 발표회를 통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베를린市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함. 市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업무성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노동보호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함.

(www.berlin.de/sen/aif/presse/archiv/20120425.1035.369250.html)

(www.berlin.de/sen/arbeit/arbeitsschutz/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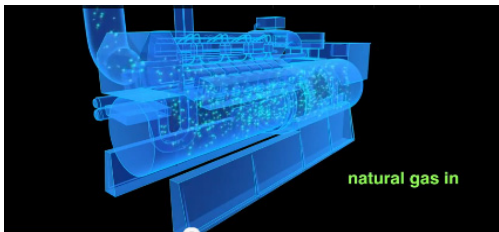
(www.berlin.de/imperia/md/content/sen-arbeit/arbeitsschutz/publikationen/jb_2011_stand_240412_bf.pdf?start&ts=1335270919&file=jb_2011_stand_240412_bf.pdf)

도 시 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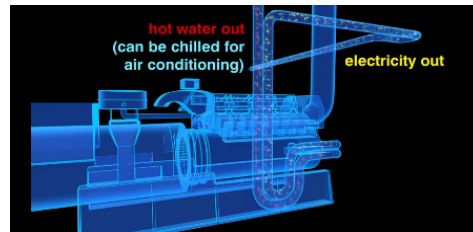
4. 도심에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활용법 ‘트라이제너레이션’ 도입 (호주 시드니市)

○ 호주 시드니市는 고밀도 복합용도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이상 저감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전기에너지 공급방법인 ‘트라이제너레이션’(TriGeneration)을 도입함.

- 트라이제너레이션이란 천연가스 혹은 재생 가능한 가스에너지를 활용하여 저탄소 전기를 만들고 이 전력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 건물만이 아닌 여러 건물, 즉 건물군(건물 클러스터)에 활용하는 방법을 말함. 도심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비율을 대폭 떨어뜨릴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음. 시드니市는 이미 2010년부터 이를 계획해 도시 장기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음.
- 시드니 북쪽 지역에서는 트라이제너레이션을 활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개별 건물이 생겨나고 있지만, 도시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후원해 한 차원 높은 에너지 공급원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 市의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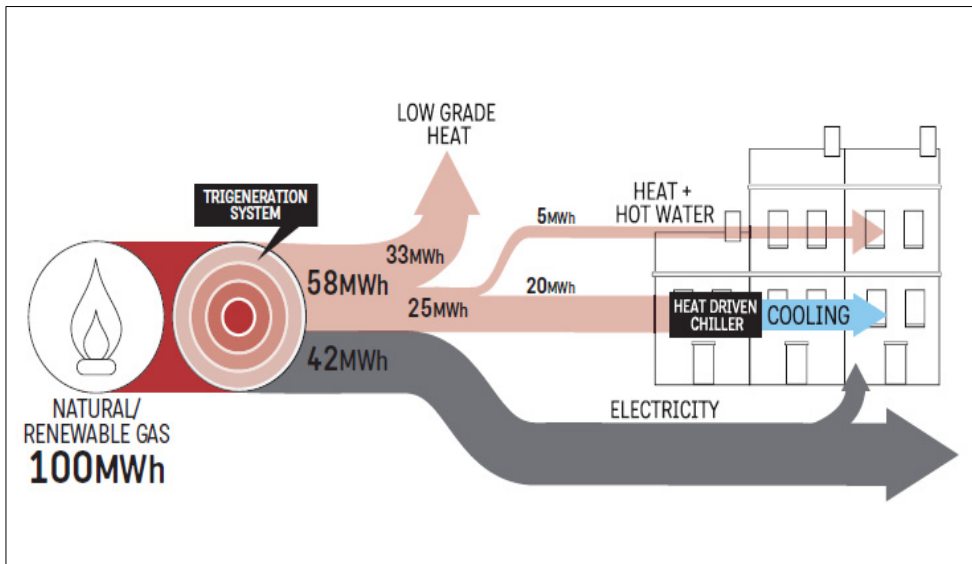
【천연가스 투입】



【전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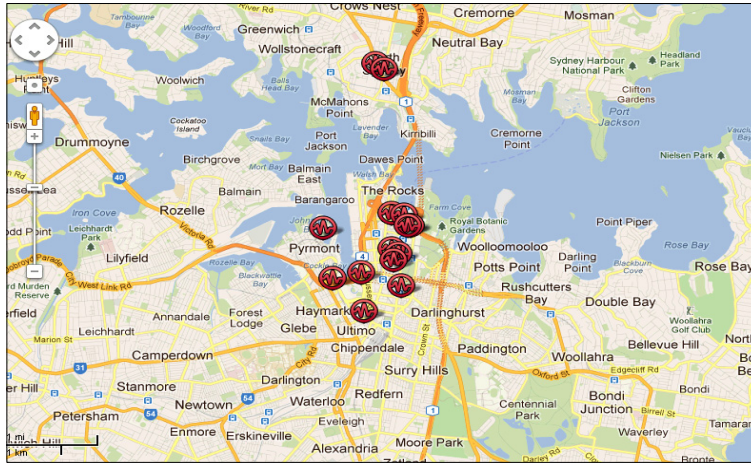


【한 곳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인근 지역 건물군에도 공급】



【트라이제너레이션을 활용한 냉난방 공급방법 및 효과】

- 市는 트라이제너레이션 발전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2배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030년까지 70% 이상의 전기를 이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임. 또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감함.



【시드니市 내 트라이제너레이션 건물군 위치도】

(www.cityofsydney.nsw.gov.au/council/OnExhibition/CityofSydney.asp)

5. 재활용쓰레기를 로컬푸드와 물물교환하는 프로그램 시행 (멕시코시티)

-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농산물로 바꿀 수 있는 물물교환 시장 프로그램 ‘Mercado de Trueque’를 시행 중임. 이 프로그램은 매립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고자 재활용쓰레기를 농산물을 살 수 있는 크레딧으로 바꾸어 주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市 환경국은 재활용쓰레기를 가져오면 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는 크레딧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재활용쓰레기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제대로 분류만 된다면 원자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함.
 - 물물교환 시장에서는 유리, 종이,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페트병을

받고 대신 지역 농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Green Point’라는 크레디트를 줌. 농장에서는 상추, 배, 시금치, 토마토 등을 포함한 식재료뿐 아니라 화분이나 꽃도 살 수 있음. 2012년 3월에 열렸던 첫 번째 물물교환 시장에서는 거의 3톤에 이르는 60여 가지의 농산물이 물물교환으로 다 팔렸음.

- 市 환경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적이 토양보전 역할도 하는 지역 농장을 널리 알리고 이를 격려하며 지지하는 데 있다고 밝힘.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게 되면 지역 농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도 줄이고 탄소 발자국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각 가정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일이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물물교환 형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음.

(www.fastcoexist.com/1679706/mexico-city-now-lets-you-trade-trash-for-food)

새로운 친환경 도시 만들기 20년 계획안 발표 (워싱턴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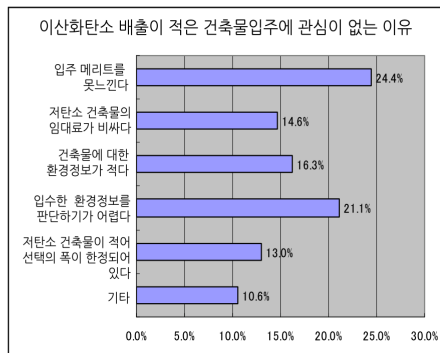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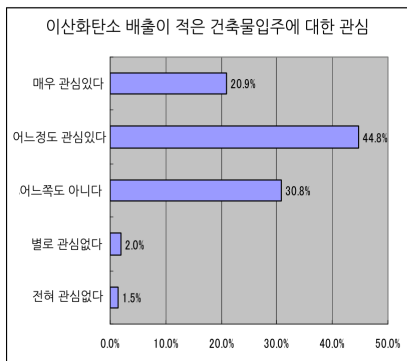
- 워싱턴 D.C.는 2012년 4월 24일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The City’s New 20-year Vision’을 발표함. 이 계획안은 화석연료 사용과 배출가스 대폭 줄이기, 나무 심기, 포토맥 강과 애너코스티어 강 청소, 빗물 75%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계획안에는 13만 9355㎡의 빌딩 옥상공간을 녹화하겠다는 안이 있는데, 현재 9만 2903㎡ 정도 옥상녹화가 진행되었음. 최대 12층 높이의 오피스빌딩 5개 혹은 6개를 새로 짓는 ‘Capitol Crossing Project’의 경우 최종 승인을 받으면 모든 옥상에 도시 농장을 만들 계획임. 계획 중인 건물의옥상 면적은 총 20만 4387㎡로 여기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레스토랑에 바로 공급될 예정임.

- 옥상정원 바닥에 까는 흙은 대부분 3~4인치(약 7.6~10cm) 정도의 두께지만, 레스토랑으로부터 수요가 많은 허브와 채소류는 더 두터운 지반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두터운 지반층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임. 겨울에도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도 만들 예정임. 市는 이 계획을 통해 市 전체 음식 소비량의 25%를 반경 100마일(약 16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작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www.washingtonpost.com/blogs/dc-wire/post/dc-farms-could-rise-above-i-395/2012/04/24/gIQARx6ieT_blog.html)

부동산시장에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저탄소 건물 보급 확대 추진 (도쿄都)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건물(저탄소 건물)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이들 건물의 환경가치가 부동산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도쿄都는 2012년 4월 26일 ‘저탄소 빌딩의 환경투자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마련함.
- 현재는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자 및 임대사업자가 이들 저탄소 건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 및 평가기준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탄소 건물 설문조사 결과】

- 검토회는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규모의 기존 건물에 초점을 맞추어 2010년부터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 제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제공 방안과 용도별·지역별 연상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함.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 평가지표 및 활용방안에 대한 매뉴얼도 작성해 배포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KONDAN/2012/04/40m4q100.htm)

(www.metro.tokyo.jp/INET/KONDAN/2012/04/DATA/40m4q100.pdf)

도시계획 · 주택

‘PlaNYC’를 업데이트하고 2014년까지의 부문별 단기전략 발표 (뉴욕市)

- 뉴욕市는 2007년 수립한 PlaNYC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4년간의 변화상을 반영해 새롭게 업데이트한 계획을 2012년 4월 말에 발표함. 부문별 세부계획에는 2014년까지의 단기전략도 함께 수록함.
 -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도시의 물리적인 부분, 특히 도시의 기능 및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함. 노후화된 상하수도시설과 지하철, 교통혼잡, 부족한 여가공간 및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룸.
- 부문별 단기전략의 경우 주로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일부 상세전략만 업데이트하는 형식을 취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택 및 주거지: 기존 계획과 비교해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에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2030년까지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함. 2013~2014년까지 완공 또는 착공해야 하는 주택단지 조성계획은 400개가 넘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도 매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임.
 - 공원 및 여가공간: 걸어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국립,

주립, 시립 공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2013년까지 53개 학교의 운동장을 시간제로 지역 공원으로 개방하며 거주지 주변에 도심 농장과 정원을 가꾸고, 녹색도시 가꾸기 관련 자원봉사자를 25% 정도 추가 모집할 계획임.

- 오염지 관리: 市 오염지 계획구역(City Brownfield Planning District)을 확정하고 오염지에 정원을 설치함.
- 상하수도: 하수 질소처리와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일정 구간의 상하수도 재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단기 전략으로 함.
- 교통: 지하철 연장구간 완공, 카운트다운형 신호등 1500개 설치, 시간대별 요금을 달리하는 주차공간 45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함.
- 대기 질: 전기자동차 충전소 60개소 이상 설치, 시내버스 685대에 디젤용 필터 설치 등을 추진함.

(www.nyc.gov/html/planyc2030/html/theplan/the-plan.shtml)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주택 자가건설 지원 (영국)

- 영국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집을 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체화함. 정부는 개인주택 자가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 절차 간소화, 관련 정보 제공, 공지의 최대한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 정책은 서민들이 높은 주택가격에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고 스스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기 위함임. 정부 조사에 의하면, 3~4베드룸을 짓는 데 15만 파운드(약 2억 7800만 원)의 예산이면 충분한데 이미 지어진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평균 23만 2000파운드(약 4억 3000만 원) 정도임. 2011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는 1만 4000호의 주택을 개인이 직접 건설함.
- 정부는 주택건설 초기에는 전문가의 많은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건축가, 건축업자, 부동산업자, 디자이너, 지속가능성 전문가의 조언을 개인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로 함. 이를 위해 정부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가 개인주택 자가건설협회(National Self Build Association)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 이 협회는 개인주택 건설 붐을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성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건설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 개선: 개인주택 자가건설 관련 모기지 이용률이 141% 증가함.
- 개인주택 건설을 위한 공지의 체계적인 확보: 정부 차원에서 개인주택 건설을 위한 공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함.
- 건설업자와 소규모 주택업자, 지자체, 토지소유자들이 개인주택 건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주택 건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개인주택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www.communities.gov.uk/news/newsroom/21329641)